

##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면 세상도 명확하게 응답한다.

첸춘팡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면 세상도 명확하게 응답한다.’ John Maxwell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 나와있는 한 구절을 나는 미추홀구에서 결혼이민자 신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좌우명으로 삼았다. 코로나가 준 역설은 인생 전반을 바꿔 놓았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성장시켰다.

내가 태어난 곳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된 우한이다. 이곳의 여름은 몹시 덥다. 난징, 충칭과 더불어 중국에서 무더위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돌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 줄 흐른다. 찜질방과 같은 날씨가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한다. 일부 남자들은 극심한 무더위를 참지 못하여 옷통을 벗고 지낼 정도로 우한의 여름은 최악이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을 우한 처가집에 남겨 두고 한국으로 먼저 떠난 남편을 오랜만에 본다는 기대감과 설렘은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 에어컨도 없는 친정집에서 코흘리개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느라 큰 여행가방에 짐을 챙기는 일은 마치 유치원에서 소풍가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들떠 있었던 마음을 연상케 했다.

IMF 사태 때 알거지가 돼, 묻지마 중국행을 택했던 남편은 중국에서도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공항에 나가 아들과 함께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설움에 북받쳐 우느라 눈이 선풍기처럼 부어 올랐다. 꽃다운 나이가 21세에 남편을 만난 이래로 줄곧 생활고에 시달리며 혹독한 세월을

보내서 자괴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걷히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일일이 챙기느라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우한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F-6 결혼비자를 손에 넣는 과정도 험난했다. 이유는 남편이나 나나 지나칠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어린 아들이 있어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남편을 만나 포옹했던 감격은 웅장하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에 압도되었다. 넓고 푸른 바다를 옆으로 끼고 끝없이 이어진 인천대교를 따라 인천 시내로 달리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절로 눈에 비치는 인천의 풍경은 장관이었다.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숲을 이룬 송도국제도시의 발전된 모습은 화려했다. 길거리 사람들의 옷차림을 통해서 인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들의 짙은 화장이 돋보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장한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인천 사람들의 패션 감각은 확실히 중국 사람들의 그것을 압도했다.

리무진 버스가 송도 중심부에 도착하자 가족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미추홀구에 위치한 원룸으로 가기 위하여 시내버스로 갈아 탔다. 버스에 탑승해서 빈자리에 앉으니 왠지 모르게 불안감과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먹고 자는 문제는 남편이 책임지겠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인천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아들 역시 또래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선행학습을 통하여 한글을 미리 깨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한국인 가정의 어린이들과 출발선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리라.

아내의 고민과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나와 아들에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했다.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짜증날 정도로 반복하여 강조했다. 무슨 이유로 인사를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나 인간은 신분상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 부모님을 만나도 인사를 드리지 않고 얼굴만 빤히 쳐다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어른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이 한국인들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은 동방예의지국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였다.

단일 민족임을 유난히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혼혈아로 태어나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 탓에 아들이 학교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게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어머니가 조선족도 아닌 중국 한족이란 사실을 알게 된 급우들이 “너희 엄마는 오리지널 짱깨라 몸씻기를 싫어하니 더럽겠구나!” “너는 되놈의 자식이니 의심이 많겠구나!”라고 놀려서 아들이 더 이상 인천에서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말했다. 부모 입장에서 애한테 이런 소릴 들으면 누구나 괴로울 것이다. 나 역시 몹시 곤혹스러워 말문이 막혔다. 한글을 전혀 몰라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도 버거운 일인데 친구들의 놀림거리과 웃음거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나와 아이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한다. 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학교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셨던 선생님을 만났다. 정규직 교사 신분을 가진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과 만남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아들이 한글을 깨치도록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셨다. 무엇보다도 한글을 다른 애들이 이해하는 것 만큼 숙지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한글부터 완벽하게 아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성장과 발전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뚜렷한 목표를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란 걸 깨달았다. 선생님의 헌신과 아들의 노력이 결합하여 불과 6개월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여느 급우들과 똑같이 교과 및 비교과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되었다.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Helen Keller의 스승과 같은 선생님의 만남이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학교생활에 빠른 적응을 가능하게 했다면 태권도장에서는 친구들의 놀림으로 상처받았던 아이의 마음이 치유를 받았다. 사실 태권도 수련 자체가 건강과 체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울러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점은 학교생활 적응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아들이 승품단 심사를 통과해 검은색 띠를 착용하게 되어 의기양양했던 모습이 코로나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내 마음을 언제나 두근거리게 한다. 내 얼굴을 강타할 것 같은 아들의 발차기 시범을 보고 있으면 우울증이 말끔하게 사라진 것 같은 행복감에 젖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덕분이다. 더 나아가 사회 통합과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미추홀구의 복지정책이 빛어낸 결과물이다.

이국땅에서 아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시켜주고 싶은 것은 어느 다문화 가정의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한에 계시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다는 소원은 들어주지 못했지만, 나머지는 소박하지만 빛나는 실천이었다. 북한강에서 모터보트 타기, 문경새재에서 사과따서 먹어보기, 울진에 있는 한적한 해변에서 그림 그리기 등 우리 가족은 학교공부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 하나씩 체험하기 시작했다. 슬픈 현실이지만 보습학원에 보낼

수 없는 가난과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 준 역설이다. 그렇게 짬이 날 때 마다 나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힘을 주는 다양한 비교과활동들을 아이에게 선사해주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 공공도서관과 국립박물관 견학,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공연 관람과 영화관람 등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평소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통하여 사고력의 폭을 넓혔고, 현장체험학습이 끝나면 가족 모두가 각자 느낀 점을 서로 발표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렀다.

가장 값진 경험은 스마트폰 지도 안에 있었다.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갈 수 없어서 우리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奧地로 소문난 곳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찾아 다녔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각자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지름길을 공유할 때마다 저절로 다양한 도착 방법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웃음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렇게 바로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닌가 싶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더불어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가 가까워지며, 아이가 더욱 행복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 줄 원동력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다양한 체험들은 아들이 끊임없이 희망의 사다리를 밟게끔 해주었다. 사다리를 밟는 의지와 노력은 아들의 꿈과 희망을 예상보다 빨리 영글게 해주었다. 초창기 머뭇거리며 자신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학교생활과 한국생활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어요"라는 아들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과 자긍심이 넘친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생활통지표에 "아들의 학습능력과 학교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었고,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와 친구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우수하며 교우관계가 좋다."고 칭찬을 하셨을 때, 나는 아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공부하는 어린으로서 모름지기 갖추

어야 할 우수한 학습능력도 중요하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

아들의 미래를 그려보며 내가 노력을 통해 선물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이 아들이 장차 걸어갈 인생항로에서 네이게이션과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도 열심히 돕겠다고 아들의 손을 잡고 약속하였다. 어린 아들이지만 엄마와 마음이 잘 통했고, 학교생활과 한국생활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지향점이 같았기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나와 아들은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였다.

이렇게 나와 아들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가족이 힘을 합하여 희망의 사다리를 밟아왔기에 앞으로 아들과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닥치고극복'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빌리기 위하여 용비도서관에 간 아들이 "어떤 책을 빌렸을까?" 자못 궁금하다.